

‘여의도 학원강사 코로나19 확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20. 5. 30.

안녕하세요.

오늘(30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 ‘여의도 학원강사 코로나19 확진’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지난 29일 영등포구청은 인천시 보건당국의 1차 역학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여의도 학원 강사의 어머니가 22일 쿠팡 직원을 만난 뒤 코로나19 증상을 보였고, 이어 여의도 학원 강사로 일 하는 딸이 어머니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영등포구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학원 강사의 어머니가 부동산에서 쿠팡 직원을 만난 날은 22일이 아닌 25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꼭진 질병관리본부 환자관리팀장도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가족 중) 학원 강사가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가족 증상 발생일이 좀 더 빨랐다”면서 “쿠팡 부천물류센터와의 관련성보다는 가족에게 감염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발표했으니 이점 간곡히 참고 부탁드립니다.

쿠팡은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협의해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